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

1. 教會에 革新을
2. 社會에 變革을
3. 世界에 所望을

총회와 지방회를 앞두고

-9월에는 각지방회 10월에는 제27회 정기총회가 개최.....●
-된다. 이번 총회는 임직원 개선의 해이며 작년총회.....●
-시 통과된 헌법개정안의 성문화를 결의하게 된다.●

일단 통과되긴 하였으나 지난 1년동안에 헌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시비여론이 분분한 것을 보면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올듯하다. 이번총회에서는 또한 거액의 사업으로 KCC가 건설된 것으로 거기에 대한 세밀한 보고도 있겠고 동시에 앞으로 KCC운영문제와 활동과제에 대한 진지한 토의는 물론 가장무겁게 걸진 KCC건설부채 2,000만원의 염려에 대한 토의가 큰과제로 오르게 될 것이다. 선교 10개년계획이 제1기 3년이 지난해로서 1968년부터 1978년을 향하

는 선교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제2기 3년의 새계획과 전망에 대한 토의안도 긴급한 과제로 오르게 되고 있다. 재정 빈약과 인재부족이 가장 큰 애로인 동시에 총회원의 자세와 사고방식도 총회의 역사적 흐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헌법개정안의 목표의 하나로 지방회 기능강화와 오히려 총회중심인 자세에서 지방회중심으로 자세를 바꿔 나갈 의도도 있는 듯한 것을생각할때 총회에 서 토의될 모든 안건은 지방회를 경유해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 원래의 성격과 아울러서 금년 지

방회로부터 총회전체의 문제를 먼저 지방회에서 검토도 하며 다루고 익혀서 지방회로서 주권을 가지고 총회에 올라와야 될 것이다.

임직원 개선에 대해서도 적재적소로 재일 대한교회의 특수적 상황속에서 가장 기능적인 활동을 하도록 인재를 세워야 할 것을 지방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도 요건하며 헌법 개정안도 먼저 지방회에서 문제점을 다루고 건설적인 인식도 가지고 올라와야 할 것이다. KCC문제를 단지 판서지방회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쉬운 사고를

박워서 총회전체의 책임이므로 알고 각지방회가 자기 책임으로 생각하여 발전적인 의견과 지향을 가지고 올라와야 할 것이다. 선교 10개년계획은 우리 총회가 역사책임을 느껴서 선교 70주년의해인 1978년을 향하는 사업계획인 만큼 재일 대한기독교교회 각교회가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성격이며 총회전체가 공동목회적인 사고의식을 가지고 재일 60만 동포의 존재와 삶에 관하여 진지한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의 포어는 10개년계획의 부동적 자세를 말함이니 제2기에 드러친 이번총회에서 재검토와 새계획안이 실시되어야 한다. 각지방회가 선교 10개년계획사업의 내용과 재정적인 뒤바침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방안을 가지고 총회에 올라와야 할 것을 총회를 앞두고 요망되어 있다.

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성구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 보다 높아질 수 없다.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의 공체로 그를 본받는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라 하겠다. (계 속)

布施教會新築感謝

입당예배를 거행

지난 9월19일 오후 3時 布施教會신축입당예배도 關西地方會 각 교회교우들 약 150명이나 모여서 거행하였다. 과거 10余年동안 공장으로 使用하던 헌전물을 當時 本教會를 視務하던 李宗憲牧師와 教友들이 헌금하여 此를 買収改築하여 禮拜室으로 使用하였다. 元來 老朽한 建물이 기때문에 수차 수리를 하였다. 그러나 教友들은 祈禱중 새로운 禮拜堂을 願하여 1966年3月부터 세번이나 건축헌금을 하여 現地에 건축키를 定하여 오늘 새 禮拜堂 入堂예배를 보도록 되었다.

건물의 총예산이 800万이란 우리 교회로서는 힘에 지나는 액수를 세워 二層鉄筋콘크리트仕上. 坪數約 50坪이라는 적은 교회다. 一層은 牧師室(事務室 兼応接)로 비이 教室(小會議室) 台所 便所이며 二層은 禮拜所 그리고 母子室이다. 布施教會는 800万이란 예산으로 건축 했으나 많은 負債가 있고 아직 교회비용은 구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원조를 믿고 있습니다.

印刷는.....

新聞・カタログ・雑誌
ポスター・事務用印刷
韓国文翻訳・写植・印刷
僑 文 社
大阪市生野区鶴橋南之町2-335
電話 (06) 716-5046 (〒544)

公 告

在日大韓基督教會 第27回 定期總會 召 集

在日大韓基督教會總會

總會長 金 德 成

아래와 같이 제27회 정기총회를 소집합니다

記

1. 때: 1971年10月12日 (火) 부터

10月14日 (木) 까지

1. 곳: 大阪KCC會館에서

大阪市生野区猪飼野東3-33番地
電話 (06) 731-6801番

1. 總代: 四地方會에서 選出된 牧師와
長老

以 上

복 음

堺教會 尹宗銀牧師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의 기본적 요구를 바로 지적하며 세상을 구원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마귀의 시험이 예수에게 있어서 거절당한 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인간의 요구를 찾았기 때문이다. 마귀는 예수로 하여금 정정공명란 자기주장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그의 신적능력을 사용해 보라고 시험하였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시험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는 그 방법을 절대로 거절한 것이다. 예수는 세상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고난의 종이 되었다. 그의 선교는 자기자신 비천과 겸손 중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죄있는자와 같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이야말로 예수의 공적 생애에 있어서 주제가 되어

있다. 제자들은 예수의 선교방법에 참여함으로서 저희의 선교는 시작되었다. (마 20:25~28, 막 8:32以下 路加1:18~23, 빌 2:3~11, 뫼전 2:12~25).

우리에게 있어서 시도해 보려는 선교의 형태는 그리스도의 선교의 원형에 입각해야 할 것이다. 예수는 선교하는 교회를 요구하신다. 그러나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선교의 교회는 곧 세상이 아쉬어하며 요구하는 교회일 것이다. 예수께서 특정된 시대의 옷을 입고 인간이 특별히 요구하는 그곳에 중으로 나아가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빌 2:6~8), "종이 주인

여전도회 10월 월례회를 위하여

영혼의 양식

시편 120편

「게달」의 장막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 라는 표어를 내걸고 주님의 복음을 이땅에 널리 전파해 가려는 우리의 발거름은 그 첫거름에서 주저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일가친척과 가까운 이웃들이 불신앙의 연동으로 우리에게 대결해 올때 우리는 힘없이 근심에 쌓여 넘어지며 때로는 거기에 함께 휩쓸려 버리게 됩니다. 그 좋은 구실로는 「요새 세대에는 하는 수 없어」 「모두가 다 그러니까 별 수 없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없는 현실세계의 모습은 이때만이 아니라,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도들에게는 시편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구약의 시인도 「야만민 족들로부터 사노라」고 그의 담담한 현실생활을 한탄 하였습니다. 메섹……게달(시120:5)은 시인이 자른 곳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소아세아지방으로 다메섹 남쪽 수리아 사막중에 있는 게달족의 땅이며 그 이름들은 야만과 같은 뜻으로 사용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이해 없는 정황속에서도 그는 한결 같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아뢰는 기도를 잃지 않았습니 다. 특히 이 시인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혀의 시험에 대하

여 세심 하였습니다. 시인은 혀의 특색으로 그 꾀사를 장사가 쓰는 살에 비겼습니다. (120:4)

과연 우리는 남의 살에서 구해 주시기를 빌뿐 아니라 남을 해치는 살을 쓰고 싶은 우리자신의 생각에서도 구해 주시기를 빌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위환경의 그릇된 점을 날이 지적하다가도 지적하는 스스로가 또한 불미스러운 모습으로 이미 젖어 있음에 눈뜨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 얼마나 「좀더 좋은 환경이었으면 천도도 많이 하고 주님의 일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며 거듭되는 불충성한 생활을 해왔는지요.

옛 믿음의 시인이 당한 수고와 신앙의 기도에서 다시 이러나고 싶습니다.

내주위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곳에 더 선한 봉사를 하여야 하고 그릇된 불신앙의 길로 빠져가면 갈수록 더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게 힘을 다할 의무가 내 자신에게 있다는 자각으로 우리 다 함께 이러십시다. 환자가 많은 곳에서 의사의 능력은 더욱 드러나며 심한 전쟁터일수록 병사의 공훈이 세워집니다. 우리는 불신앙과 죄악으로 쌓인 오늘의 현실속에서 피곤할때 먼저 가진 많은 성도들이 무서운 믿음의 시편을 겹치고 승리한 자취를 기억합시다. 그들은 안이란 발거름으로 호사스럽게 하

나라로 올리워진 것이 아니오. 생명을 내걸고 싸워왔습니다.

최대한 세상을 구원하려 몸소 집자기를 지시고 자망편제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대장이 십니다. 그 승리의 주님을 모시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를 힘입어서 온 세상을 향하여 나서는 제일보를 강하고 담대히 내딛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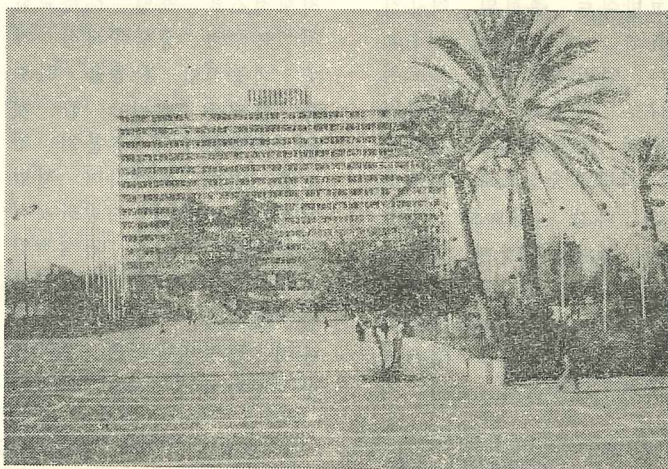
× × ×
주님의 크신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게달의 장막 같은 현실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이러서게 하옵소서. 진실된 기도와 열심이 항상 저희에게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자리를 주님의 빛으로 밝히게 하옵소서. 이 온땅우에 주님의 높으신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 멘》
(이영숙 총무)

聖地研修旅行記(2)

下関教会 洪永琪 牧師



이스라엘は建国以来23年、世界で最も新しい国であるが、しかし、民族的には、世界で最も古い国である。出迎えに出たイスラエル史学会員のマイケル氏、イスラエル氏、モーセ氏は笑顔で迎えてくれた。バス二台に分乗して宿舎の帝国ホテルに向ったが、到着してみると、日本の帝国ホテルとは比較にならないお粗末なところである。時計は22日午前3時である。24時間余も飛びつづけておりさ

すがに少し疲れているので一たん休憩した後、12時集合すると云われた。現地の時計の針は、まだ午前9時をまわった所である。昼食を文化センターで取り市内見学と古都ヨッパに行きました。この町は紀元前1500年から残っており、実に3500年の歴史を持つ町である。予言者のヨナが、神の命に背いて、ニネベは行きを拒みタルシシ行きの舟に乗ってしまったと云う、所はこのヨッパであるこの港は

世界最古の港の一つであり1917年、この全ユダヤ人はトルコにより逐放されたが、英軍の占拠により復歸した。1937年築港された、ユダヤ最初の港である、ソロモン王が神殿建築のため、レバノンの香柏の荷揚港であり、使徒行伝10章にあるペテロが天より下ってくる布の中に食うべからざる物の沢山入っているのを見て、ほうりで食せよと云うみ声をきいた。と云う物語は、この町のシモンの家の屋根の上の出来事である。ペテロはこれによって異邦人伝道を決心させられたそうです。私達はそのシモンの家の屋根の上にのぼりました。屋根の上は我々東洋人の家とは異って全部石であり、誰でも屋根の上に上がる事が出来るのである。ペテロが、空腹を抱え乍ら、かの異象を見たと言うのは北側の盛り上りの場所であり、そこに立つと、ヨッパの港がすぐ目の下に見えるささやかな防波堤が黒く長く北に向って伸びている、その先端に5個の平岩が海面すれすれに見えたり見えなかったりする。人呼んで「救いの岩」と呼ぶそう。海上で難波した舟がこの岩に来たら助かるからである。町に入ると狭い露路をくぐって行くと家々の標札がまたおもしろい。青焼のセトモノで鳥や牛や魚や人の形ですぐ目立つ様にしている。政府も古都ヨッパのお面影を残すために心がけているそうである。

ヨッパを後に又テルアビブに戻り、アジア・アフリカ研究所にて時間の講義があるので行っ た。そこには世界83ヶ国から学生が来ている。日本人学生4人、韓国大田大学助教授呉氏も研究に来ていた。異国で同族にめぐりあうことはうれしいことであつた。講義は副所長のリッシュ・ザビ

(4面へ)

教会の集会などにご利用を

教会の皆様には一泊2食付、サービス料などすべて込みで、¥1500.-です。
「ヘルストロン」保健装置を無料でご使用できます。
また、このルームにはキリスト教書籍を設置。

在日大韓基督教会 指定旅館

上 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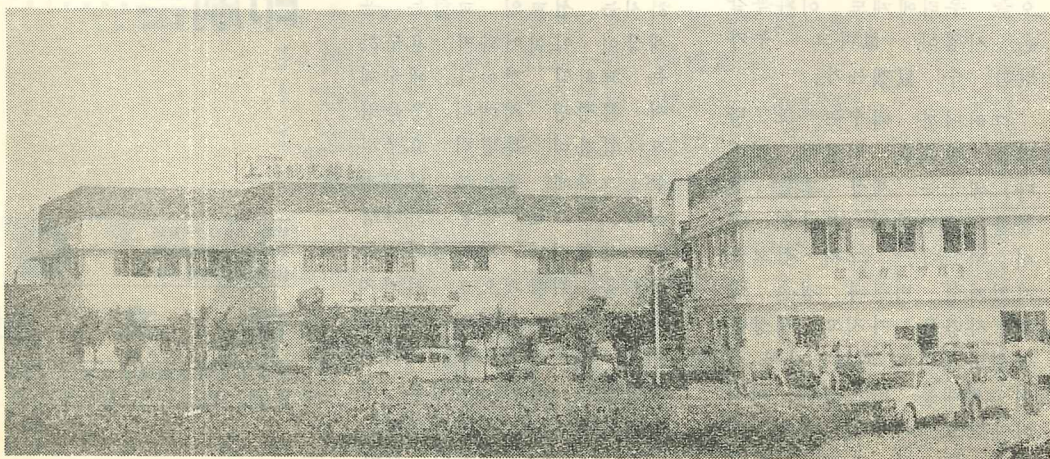
代表者 金 京 秋

和歌山県西牟婁郡白浜町椿

電話富田 (073991) 445~6

大阪案内所 大阪市北区曾根崎町2-21

電話大阪 (06) 341-2162



地方会・総会に望む

— 1972年を目ざして —

- ☐.....9月には4地方会、10月には第27回定期総会が開催される。.....☐
- ☐.....今年の総会は、新しい役員各機関の責任者が改選される総.....☐
- ☐.....会である。.....☐

主要な献議案として、昨年総会で一応可決された、憲法改訂案の成文化が議題となって上呈される。特に機構改革案に多くの問題を感じている向きもあり、在日大韓基督教会の特殊な性格と現実とに照らして「状況とのかかわり」に視点を置いて、十分に検討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青年局が廃されて教育局の中に青年活動全般が包括されることに、青年問題が「状況とのかかわり」に思考の焦点を置いて、問題化されている今日、今一度、総会の場に於て、検討され、充分、納得の行く結論が要請されている。

総会全体が、負い切れない

程の重荷としてKCCが建設された。総会の場に於てくわしい報告と共にKCC運営、残された負債 2,000万円の調達案に併せて、KCCの性格、使命、プログラムが充分討議されることが望まれている。

宣教 10個年計画も第1期3年を経過して第2期に入る年である。1978年の宣教70周年記念に向っての事業であり、総会が「キリストに従ってこの世へ」の標語、そのままに日61万同胞の担っている、すべての問題を教会が担って行こうと言うのである。これは総会全体が、共同牧会として推進して行くべき性質

のものだから、今度の総会に於て過去3年間の業績を検討し、新しい第2期への計画を立てると共に、これの推進具体案とこれに要する財政の分担を何うするかということなどを充分に討議されることを望んで已まない。

機構改革の意図するところの一つに、地方会の機能的強化が打ち出されている。このことの意義づけの為にも、今年の総会は、憲法改訂案、青年問題、KCC案、宣教10個年計画案のすべてを、九月の各地方会に於て充分に検討し、地方会としての主見を持って総会に臨むことを望んで已まない。重ねて望むこと

は、福音信仰に立って、「状況とのかかわり」に今日の教会の在り方が考えられていることを、我々、在日大韓基

督教会の思考として、総会が諸献議案を今日の教会として充分に討議されんことである。

真に恐るべき方

ルカ 12:4~7

1. 都市化、世俗化の波によって浮き草のように生きているといわれる現代人は神を恐れないで自分の欲望に浮き身をやつしている(ピリピ 3:19)。職業は神の召命によって与えられているという聖なる使命感は(ヨハネ 4:23)遠の昔になくなっていて、労働争議が日常ようになって来ている(マルコ 12:5~9)。これはみな物質文明のもたらしたものである。資本家は労働者の血をしぼって自分の資産の蓄積に余念がなく(ルカ 11:46,46)労働者はマイホーム主義とレジャーのための職業と化してしまっただけで、これはみな神によって授けら

れている使命感がなく、神を恐れた経営の仕方をしていないからである(エペソ 6:4~9)。

2. 主イエスはまず弟子に対して、大迫害が起こるであろうが絶対にその為政者いわゆる宗教の指導者と称するやからを恐れるなと戒められた。彼らは真に恐るべき神の存在を知っているようで事実には知っていない。一羽15円で売られるすずめさえも、神のゆるしがなければ(マタイ 8:20)うちあてることが出来ない。空の鳥は神の守りによって生きている。ましてや全世界よりも尊い人間の生命(マタイ 4面へ)



関西韓国YMCA PROGRAM案内

	PROGRAM名	指導者	内 容	会 費	開 始 日 時	募 集 人 員 及 期 間
少年活動	YMCA少年少女自由画美術教室	早川允教	◎考える力を伸ばし自己表現力を養う ◎自主性を育て、責任感と協調性を養う ◎自由な中で規律を身につけるよう導く ◎自由な発想で創作力	申込金 2,000円 月会費 1,000円	1971年9月6日から 毎週月曜日 PM3:00—PM5:00	人員:20名(先着順) 期間:1971年8月21日— 9月4日 募 集 中
	SING ALONG“Y” (青年及び学生)	康成安	◎SONGを通して青年の交わり ◎韓国民謡及び世界民謡を育てる	毎回 50円	1971年9月9日から 毎週木曜日 PM7:00—PM8:30	青年はだれでも 自由に参加出来ます
一般活動	婦人特別プログラム	金浩植	◎民俗音楽、民俗舞踊 ◎大衆音楽を通じた婦人の交わり	毎回 50円	1971年9月6日から 毎週月曜日 PM7:30—PM9:00	婦人はだれでも 自由に参加出来ます
教 育 活 動	韓 国 語 講 座	李次淑	◎韓国を理解出来る。文通或は書籍を読める ◎韓国語を必要とする機関並に職責に居れる方 ◎韓国語を比較言語学的に研究したい方 ◎韓国に留学を希望する方 ◎韓国に訪問、観光其の他の旅行を希望する方	申込金 3,000円 月会費 2,000円	1971年9月7日から 毎週月・木曜日 PM7:00—PM9:00	人員:30名 期間:1971年8月21日— 9月4日 募 集 中
	韓 国 料 理 講 習	朴貴洙	◎世界で最も優秀な料理を作り ◎味をもって新しい身体を健康を維持	申込金 2,000円 月会費 1,500円 (材料費別)	1971年9月9日から 毎週木曜日 PM5:00—PM7:00	人員:20名 期間:1971年8月21日— 9月4日 募 集 中
	ドレメ式洋裁教室	文沙羅	◎初心者でも短期間に自分の服がぬえるように指導 ◎経験のある方はすぐにスーツ、コート、その他をぬえるように指導 ◎主婦の方も大歓迎 ※特別に色彩学も指導	申込金 2,000円 月会費 1,500円	1971年9月9日から 毎週木曜日 PM7:00—PM9:00	人員:20名 期間:1971年8月21日— 9月4日 募 集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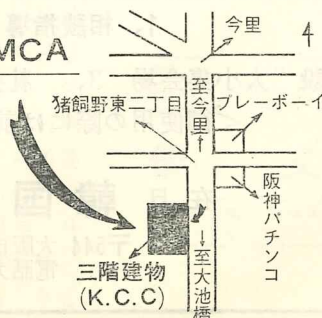
YMCAは青少年の健全誠と霊、智、体の均衡のとれた人格を養成し、社会に於いて責任を担うことの出来る人間性を目ざしており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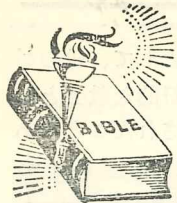
※ 上記のプログラムについての詳細は下記でお問い合わせ下さい。

関西韓国YMCA

〒 544 大阪市生野区猪飼野東 3-33
電話 712-2452, 731-6828

関西韓国YMCA





聖 書

全 能 者

詩篇 61:1~8 金 元 治 牧師

1. 全能者という語を旧約でモーセが8回、ルツが4回、予言者全部で2回用いているのにヨブは31回も用いている。彼は全能者という意味を「すべてのことをなすことができ、またいかなるおぼしめでも神様には出来ないことがない」といっている(ヨブ 42:2)。聖書の中で全能者という場合には独裁的な統治者という意味ではなく、愛情こもった神を示している。全能者という語には胸、又、母の胸に抱かれるという意味も含められている。だから、主イエスは「ああ、エルサレム、ああ、エルサレム、めんどりが翼の下にそのひなを集めるように、私はおまえの子らを幾度集めようとした事であろう」とその民を思うこと、めんどりのひなを思うことがごくであることをお示しになられた(マタイ 23:37)。

2. このような憐みに富み給う神は今、イスラエルが戦争にあい苦しみが多く、人々が苦しんでいる時に神にそむく者たちのために恐れることはないこの愛情に満ちた神は御自分の翼の下に集めて、どんな被害をも受けさせないとするのである。主イエスが五千名に5つのパンと2匹の魚で食物を満足に食べさせた後に群衆はイエスを王様にさせようとした。このことは経済的

に安定した国民のことを思う王様を願ったからである(列王紀 18:32)。現にこの世での生活は神が私たちを支え導いてくれなければ、とうてい生きていくことのできない悩みがあまりにも多い(ヨハネ 5:1~5)。だから、信仰生活をしっかりしておらないと人生を良く生きぬくこともできない(マタイ 9:20)。

3. ヨブが全能者の名を31回も用いることは実に彼の人生において、この全能者なるエホバの神がなかったなら、あの悲惨な人生を生きる者ではない。彼は苦しみの度毎に全能者を呼び求めた(5:17, 6:4)。彼はこの全能者をうらんだり、苦らくあたりたり、全能者に向って泣きわめいたりした(3:20~21)。しかし、全能者なる神を疑うことは一度もなかった。そこに信仰による人生の勝利があった(ヨブ 42:10~16)。詩人のいうように、たとい千人があなたのかたわらにたおれ、万人があなたの右に倒れても、その災はあなたに近づくことはない。このことはこの世の悲劇的人生にも神はあわれみによってゆうにそれを勝ち得て余りある人生を送れるように愛と力を給う(ロマ 8:31~39)。(西成教会)

(3面より)

16:20) が神の許しなくてう

ばわれ、殺される筈がない(マタイ 6:25~30, 10:27~29)。だから私たちは真に恐るべきであると思っている金銭や為政者や時代の思想というものはすぐなくなる草木や花にすぎない。華やかに見えてもすぐなくなるものである(第1ペテロ 1:24)。教育や経済が絶対であると思っている現代人に対する強い戒告である主の言は厳しい(マルコ 3:28~29)。

3. 主イエスの金持ちと吃食の例話が、金持ちは死んで地獄に行き、吃食は死んで天国に行った、金持ちは自分の財産を自分勝手に用いて貧乏人に対するの同情的配慮がなかったのである(ルカ 16:19~26)。世の中の人々は自分の財産である、私の勝手であると思う。神より与えられたものであるとの意識がないからである(ルカ 15:22)。私たちが真に恐るべきものは人間の生命をも支配する神である(ルカ 12:7)。世の中には親不孝であって成功したためしがなく、同じように、天地を創造しそれをつかさどる神を無視してよくなる筈がない。神はそんなに侮られるべき要素はない(ガラテヤ 6:7)。人間の生命の主管者である神をこそ恐れ、真の人生を送るべきである(第1コリ 15:56~58)。

(2面より)

トル教授によって2時間つづいたが、そのほとんどが質問と応答の形で何時限になったかわからない内に過ぎた。講義の内容は活気にあふれたイスラエル建国を語った。或人がイスラエル青年は徴兵制に対して、反発はないかと質問した。それに対して我々は戦争を好む者はない。300万にアラブ2000万人がよってたかってくるので、守るために戦うので青年はよろこんで兵役義務に服するのである。我々第二次大戦の時、実に600万がナチスに殺された。その中100万人は老人と子供であった。何の理由もなく、ただユダヤ人であるから殺された。またナチスは我々同族の肉をしばってセッケンを作ったのである。

我々は、この様なことが二度とされてはならないため、男女老少共に努力していると力強く説いた。最後に私が信仰の面で質問した。私達は東洋の日本と韓国から来ている。聖地は信仰の発生地・中心地だと思っている。しかし、異教の多いのはなぜか？ 貴方達の信仰はどうか？ 神の恩恵と聖霊の働きを信ずるか？ と問うた。これに対して、特に彼自身の体をふるえながら力強く、私達は神の恩恵で生きていることを信ずる。山も川も草木も私達は神なしで生きられない。と答えて皆さんから拍手を受けた。その時、イスラエルの国営テレビ放送局から来て私達一行をテレビにうつした。その翌日午後7時、全国に放送された。私達は特別な観光客として、一般人が行くことの出来ない、国境地とパニヤンのヨルダン川の源水地まで行ける許可をくれた。明日はカイザリヤを経由、カメル山より、ハイファ港に出て、ナザレ、カナ、ガリラヤ湖に行く。

テル・アビブ(TELAVIV)の町は甚だ活気に満ちており、夜通し自動車が街中を走り続けているような感じだ。夜中2時頃目が覚め何度も起きた。日本の時計は朝8時も過ぎていからであろう。今日は、カイザリヤ経由、カメル山より、ハイファに出て、ナザレから、カリヤ湖、カベナム、山上乗訓の山をへてキブツまで行って、そこに宿泊する予定である。カイザリヤへ行く途中、メソポタミアに立ち寄った。エジプト6000年の歴史文化をほこる町であったそうだが、今はさびしく、シナゴク(会堂)の蹟とユダヤ人特色の墓地がのこっ

ているのみであった。バスは全速快走を続けてカイザリヤに着いた。

■カイザリヤ(CAESAREA)使徒行伝 8:40, 23:33、ローマ軍の駐在地であり、ロマのユダヤ総督府の町であった。B・C 22年差工し、12年の歳月を費して建った。これは、ヘロデ大王がカイザ・アグストに敬意を表して、カイザリヤと命名したそうです。当地は大都市であり、ユダヤの主要港であり、小ローマとして知られていた。3~4世紀にラビの学校として栄えたこともあり、キリスト教の学問の中心地であった。ローマ軍の遺跡が多い、現在はリゾート・センターであり、古代円形劇場跡において、音楽会が開かれる。3万人が収容出来る所である。最近海岸近くに当時のユダヤ人会堂が発掘されている。イスラエルに来て、はじめて踏む廃墟の跡地、私は重い歴史の圧力を感じ乍ら、二千年の昔に於て、よりすぐれた建築技術を彼等も持っていたなあと考えた。

カイザリヤ廃墟を後にして更に北上し、シャロン平野を通り、カメル山脈にそって走り続けた。カメル山は、旧約の有名なエリヤ予言者がバアル偶像崇拝者を非難した処である。よほど高い山と思っていたが、高さ400メートルしかない山であるが、きびしい岩の丘陵地帯である。頂き近く大きな石ころがころころと落ちてきそうな気がする。バスはこの山の中程までのぼって見張らしの良い処でハイファの町を見おろした。ハイファ市は人口20万であり、現イスラエルの最大な港である。この一帯には多くの工場や、研究所があり、特に美しいババイ教の神殿があるので有名らしい。又ハイファで素晴らしいダイヤモンド加工場を見学した。これは国営で信用と安価だとのことで、皆ながよろこんだが、残念ながら〇がない。バスはハイファより進路を東に転じ、ナザレに向った。ナザレはイエスの育った町であり、故郷である。ナザレの人口は4万人でアラブ人が多い。しかし55%はキリスト教徒である。多くの教会及び施設があり、エルサレム、ベツレヘムと並び称され美しい歴史の町である。町の中心に大きく美しく目立つのは受胎告知教会である。

(つづく)



<趣 旨>

韓国基督教会館(KCC)はキリスト教精神にもとづき、同胞の現実を直視し、差別体制の中で苦しみながら生きている同胞と、日本社会の中で底辺に置き去りにされている人々に責任の重さを感じ、この問題を共に担うことが私達の教会の使命であると自覚し、その使命遂行を目的とします。

働 き

- 1、福祉活動(児童福祉、保育園、民生、職業指導)
- 1、青少年活動(少年センター、青年活動一般)
- 1、婦人活動(婦人活動一般、教養教室)
- 1、地域活動(地域開発運動、基本的人権擁護)
- 1、文化活動(文化交流、文化教室)
- 1、相談指導(人生、社会、家庭児童各相談)

施 設 大小集会場 3、礼拝堂 1、屋上 1、ロビー 1、食堂 1

<御使用の際には前もって御連絡下さい>

在 日 韓 国 基 督 教 会 館

〒544 大阪市生野区猪飼野東3-33
電話大阪(06)731-6801(代)